

“군중 피난 형태 ‘인재’...사건 매뉴얼 정부가 마련했어야”

김용철 호남대 교수·송창영 광주대 교수가 본 이태원 참사 원인과 대응책

내리막길 인파 몰리면서 참사...지리적 특성 고려한 매뉴얼 마련 시급

인파 수, 위험예측 지역, 상황에 따라 부처 역할 구체적으로 나눠야

150여명이 사망한 ‘이태원 헬러윈 참사’는 군중 피난의 형태에서 발생한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많은 군중이 모이는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참사라는 점에서 군중 피난에 대한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소방당국은 지난 29일 발생한 이번 사고는 서울 시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옆의 폭 4m 가량의 골목 내리막길에 인파가 몰리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용철 호남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이태원 참사는 정확히 분석하면 재난·재해는 아니다”면서 “전형적인 군중피난 사고와 유사한 형태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군중피난 사고는 지진이나 화재, 붕괴, 침수 같은 재해와 맞물려 있지 않은 대규모 사고로 군중이 사고를 피해 한꺼번에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태원 헬러윈 참사가 이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결국 군중피난에 대한 매뉴얼 부재가 대형참사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이태원이라는 곳은 항상 주말이나 행사 있을 때 젊은 인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이 전부터 헬러윈이나 다른 행사에도 굉장히 많은 인파들이 모였는데, 그동안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인위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싶다”면서 “군중이 자

주 모이는 곳에 사고가 발생하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사전 매뉴얼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마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군중피난 사고는 지리적인 특성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지리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번 참사도 도로 폭이 더 넓었거나 경사가 없었으면 대형 사고로는 연결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전에 지역에 대한 위험요소들을 분석해 거기에 맞는 매뉴얼을 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창영 광주대 건축공학과 교수도 실효성 있는 매뉴얼 제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지자체가 그동안 만들어둔 매뉴얼은 재난안전의 경험이 없는 공무원들이 만들어왔거나 다른 지자체에 있는 매뉴얼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물리는 인파의 수, 위험 예측 지역, 상황마다 소방·경찰·지자체 등 각 부처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나눠야 한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때 경찰 병력 배치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김 교수는 “이번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은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인파의 움직임이지만 사전에 예측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과하게 많다는 신고가 접수된 시점부터 경찰력이나 소방력을 동원해 인파의 흐름만 잡아줬더라면 이렇게까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31일 오후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헬러윈 참사' 합동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헌화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또 시민들의 교육 필요성도 제기된다. 군중피난 특정 중의 하나가 ‘익명성’이라는 점에 다수에 밀려서 피난을 할 때 내 의지대로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속도로 피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일반 대중은 사고 현장에서 본인의 입장에서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 ‘밀어 밀어’, ‘올라가 올라가’의 말만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 사고가 커진다는 설명이다. 특히 위급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시민들의 행동을

제지할 경우 익명성으로 인한 무질서로 통제가 되지 않는만큼 사전에 광역 피난에 대한 재난 안전교육이 필수라는 것이다. 송 교수는 “지자체의 전문성 부족과 시민들의 안전의식 부족이 합쳐진 참사”라면서 “시민들의 안전의식 교육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이번 참사와 같은 상황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송 교수는 “휘말릴 수밖에 없다면 현장에서 가장 빨리 벗어나는 것이 좋다”면서 “다피조차 불가능하다면 흥부가 압박받지 않도록 팔을 모아 공간을 만들어주고, 최대한 옆으로 돌아 누워 뒤에서 미는 압박보다 옆에서 받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민헌기 기자 hyunki@

광주·전남 애도분위기 고조...합동분향소 추모발길 이어져

광주·전남에서 ‘이태원 헬러윈 참사’ 사망자들에 대한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31일 광주시와 전남도는 각 청사 인근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했고, 광주지역시민사회 단체도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 무인 분향소를 마련해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계속되고 있다.

5·18민주광장에는 광주세월호상주모임과 청소년 촛불모임 등이 별도의 무인 분향소를 설치해 이날 오후 3시 20분부터 추모객들 조문이 시작됐다.

이날 무인 분향소에 첫 분향을 한 김민지(73·광주시 동구 소재동)·임순재(46) 모녀는 “10대 20대가 숨진게 마음 아파서 일부러 찾아왔다”고 분향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러 김민지씨는 “서울에 큰 딸이 살고 있고 사고 당일 손주가 이태원에 있었는데, 다행히 건물 안에서 콘서트 보고 있어서 사고를 피했다”면서 “희생자들이 하늘에서 못 다 핀 꿈 이루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자체도 애도 분위기에 동참했다. 광주시 북구 등은 검정리본을 착용하고 단체 회식과 과도한 음주, 사급하지 않은 행사나 국내외 출장도 자제하기로 했다. 5·18단체들도 추모현수막을 도심에 내걸고 추모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민주노총 광주 지역본부도 참가 가능한 조합원들은 애도의 뜻으로 검정리본을 착용하고 대신인 활동과 야외 집회 행사 등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손주 이태원행 말려 참변 면해...손주또래 죽음 가슴 미어져”

광주서 새벽에 상경 참변 현장 찾은 송정희 할머니

‘이태원 헬러윈 참사’ 사망자에 대한 조문을 위해 광주에서 새벽기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온 송정희(69·사진) 할머니의 사연이 주변을 숙연하게 하고 있다.

지난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5일까지 6일간 서울광장에 이태원 헬러윈 참사 사망자에 대한 조문이 가능하도록 국가 애도기간에 맞춰 합동분향소를 설치했다.

분향소 설치 첫날인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에서 희생자의 넋을 기리기 위한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에 거주하는 송정희 할머니도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시청 앞 분향소를 찾았다. 19살 손주를 두고 있다는 그는 이번 희생자들의 사고가 남의 일 같지 않아서 분향소를 찾았다고 말했다.

송 할머니는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하루 전 손주 이태원에 놀러 가고 싶다고 했지만, “사람 많은데 뭐러라 가냐. 코로나가 위험하니 가지 말라”며 말렸다고 했다.

그의 만류 덕분에 손주는 참변 현장을 피할 수 있었지만, 손주 나이 또래 젊은이들의 죽음에 가슴이 미어져 서울까지 찾게 됐다는 것이다.

송 할머니는 “잔해 죽었다. 한참 커가는 젊은이들이 죽었다는 게 너무 불쌍하고 마음이 아프다”면서 “정부에서 지켜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으면 사전에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송 할머니는 이날 조문을 하고 이태원 사고 현장에 들러 참배한 뒤 다시 광주로 돌아왔다. /서울=글·사진 민헌기 기자 hyunki@



서울광장 합동분향소를 찾은 송정희 씨가 31일 조문을 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부동산 매매 컨설팅
경매, 금융
(주)오천. 010-3605-5000

싼, 임야, 삽니다
맹지사절. 010-3605-5000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사망으로 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2023학년도 전기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미래 산업대전을 견인해 나갈 고급 인재 양성!

야간과정 운영

-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 정규 석사학위 취득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 학업이수(30학점)로 석사학위 취득 가능(無논문제 시행)
 -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함양과 특허출원 가능
 -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과제 수행으로 산학인 연구네트워크 구축
- 융복합 시대에 걸맞은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창의적 공학설계, 공학프로그램 등 혁신적인 교육 과정 시스템 운영
 - 첨단기자체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

전형일정

구분	일시(기간)	장소 및 안내사항
입학원서 작성(인터넷으로만 작성)	2022. 11. 8.(화) 09:00 ~ 11 23.(수) 18:00	• 산업대학원 홈페이지(http://gsit.jnu.ac.kr) 원서 작성(일액) 후 원서 등을 출력
구비서류 제출(학업평문 또는 우편 제출)	2022. 11. 8.(화) 09:00 ~ 11 23.(수) 18:00	• 제출장소: 산업대학원 행정실(순곡대학 4도관 202호) • 제출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우961186 • 출력한 입학원서를 포함한 제출 서류 및 전형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
전형일시	2022. 12. 6.(화) 10:00 ~	• 지원대학(전공)에서 지정한 장소(신분증 반드시 지참)
합격자 발표	2022. 12. 21.(수) 10:00 예정	• 산업대학원 홈페이지

모집학과(전공)
건축공학과/기계공학과/산업공학과/재료공학과/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토목공학과/화학공학과/환경에너지공학과/환경경영학과/식품공학과/지역환경자원공학과/전자컴퓨터공학과(계약학과)

문의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 전화 062-530-1607 · 팩스 062-530-194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gsit.jnu.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63 - 9번지	264.8㎡
963 - 10번지	254.2㎡
963 - 11번지	225.8㎡
963 - 12번지	195.0㎡

- 합 계 -
939.8㎡ 구 (284.3평)

매매가 71억원

일반상업용지 용적율 1,100%
사옥 및 메디컬센터 신축 부지 적합

(주)에프티스 컨설팅 010-3625-1362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배상수(570830-XXXXXX)
• 최후주소: 전남 보성군 보성읍 현충로 65-1
• 등락기준지: 전남 영암군 신북면 월평리 730번지

피상속인 망 배상수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2년단10455호로 신청하여 2022년 10월 27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11월 1일

• 상속인: 배우리(890425-XXXXXX)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로 215, 607동 513호 (부영6아파트)

• 신고기간: 2022. 11. 1. ~ 2023. 1. 11.
• 채권신고처: 상속인 배우리의 주소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신유림(531216-XXXXXX)
• 최후주소: 광주 서구 윤천로154번길 12, 101동 1202호 (영춘동, 명지아파트)

피상속인 망 신유림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2년단1139호로 신청하여 2022년 10월 24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11월 1일

• 상속인: 이희철(620102-XXXXXX)
광주 서구 윤천로154번길 12, 101동 1202호 (영춘동, 명지아파트)

• 신고기간: 2022. 11. 1. ~ 2023. 1. 11.
• 채권신고처: 상속인 이희철의 주소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0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레스토랑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70년을 밝히는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역안내

북구	• 동 266-1920 • 문 266-1960 • 북 526-3761 • 신 222-0171 • 오 266-7601	• 동 433-1503 • 우 433-1503
동구	• 광 382-6836 • 동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222-9054 • 중 222-8171	
남구	• 남 부 673-6836 • 북 651-1833 • 동 673-6836 • 송 675-6605 • 진 671-7276	
서구	• 광 382-5788 • 상 부 372-2352 • 서광주 369-1625 • 문 376-7153 • 치 명 376-6511 • 동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화 남 952-1687 • 월 959-1920 • 점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	